

학벌 없는 세상을 팝니다

교육의향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학벌없는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가 한 때 전국에 두 곳 있었다. 서울에 하나. 광주에 하나.

그런데, 서울 단체는 '이제 학벌의 힘으로도 피라미드 위쪽으로 오르는 시대가 지났다'며 2016년 봄, 탈락 해산을 선언했다. 우리 단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광주에서 왕성하게 반학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다.

취업,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뿌리에 학벌주의가 있음을 놓친 반쪽짜리 진단도 문제였지만 학벌주의의 끝을 '학벌 있는 청년의 신분보장 실패'로만 본 것도 아둔했다. 단체의 유연장이나 쓰면 족할 줄 운동의 유연장을 쓰고 해산한 탓에 서울 단체의 해산은 학벌주의를 부정하는 증거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전히 인문계 학교 현관에는 학교를 빛냈으며 서울대 진학생 이름이 걸렸고, 입시 매니저로 전업했지만 손전화 뒷자리 번호가 아직 '2875'인 전교 1등 엄마는 왜 생기부를 그따위로 썼냐고 극성을 부렸는데 그랬다. 중학교에서까지 '진료문화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명문대를 순례하며 대학 상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호랑이나 독수리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SKY 언니, 오빠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학벌주의를 시각화, 촉각화, 미각화하는 여행이 한창이었는데 그랬다.

2016년은 모 은행에서 1차에서 떨어진 SKY출신 면접자를 심사기준과 평가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 구제하는 일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벌주의로 뒤범벅된 그림자 교육과정 안에서 학벌주의를 맡고, 먹고, 만지고, 들이며 살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서울대)이 재학생 부모에게 '나는야 서울대 엄마, 아빠'라 쓰인 차량 스티커를 수천 장 넘게 보호자에게 배부한 바 있다. 이 일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단체는 이를 학벌주의에 기대어 천박한 자랑을 부추기는 행태라 비판하였다.

또한, 대학 측의 이 같은 행태가 학벌주의를 더 굳게 만든다는 판단으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SNS에 한 누리꾼이 해당 스티커 사진을 올리며 '학교 배지, 학과 잠바에 이은 계급 과시'라 평한 이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학벌주의에 담겨 살거나 놀러 사는 대한민국에서 '문제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푸념하기만 하던 학벌주의에 대해 꽤 의미 있는 성찰과 비판들이 생생하게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도 흔한 굿즈이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식 자랑하는데 웬 열등감 폭발?'이라고 반응했지만, '노동과 교육이 얽혀 있는 정도, 학벌주의에 찌든 정도 등 우리나라 상황을 외국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으며, 성인 자녀가 간 학교자랑을 왜 부모가 모는 자동차에 하느냐'는 반응이 주류였다.

자식을 의대생, 서울대생으로 만든 일을 가족의 성과로 과시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솔직한 자랑일 수도 있다. 그 표식을 취하는데 든 가문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우리나라 1년 사교육비는 이제 30조원을 넘게 될 것이고, 자녀의 학벌이 집안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연구와 통계는 이미 차고 넘친다. 고소득 가정에서 부모 중 한쪽이 10년 넘도록

이어지는 입시 마라톤의 매니저가 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학벌을 취득한 학생은 집안의 힘으로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대 스티커는 입시에 우월한 집안의 유전형질, 부모 세대의 경제력과 문화적 자양분 등이 자식의 몸을 통해 배합되어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세습된, '근대적인 양 봉건적인' 신분증이다.

신분을 '피'로 세습하는 시대 때는 불합리한 신분 세습에 대한 미안함이라도 생겼겠지만, 이미 능력주의와 버무려진 학벌주의의 신분증은 우리 사회에 폭군처럼 군림하며 피라미드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사다리를 걷어차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배분되는 빈약한 자원을 '무능력하다'는 딱지를 붙여 정당화할 명분이 된다.

우리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에 간간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언어로 힘차게 싸워왔다. 소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과장을 만들고, 그 가족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행태는 학벌주의가 시각화된 결과다. 우리 역시 학벌주의에 맞서는 마음, 학벌주의로 뒤틀린 세상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의 연대를 드러내고자 학벌없는사회 굿즈(배지, 과잠)를 제작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한 펀딩에 즐겁게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학벌주의가 너무 단단해서 그것이 깨진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이 깰 수 없었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번 사건을 두고 세상에 쏟아진 시민들의 언어로 학벌주의를 깨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학벌'의 울타리를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가길 것이다.

학벌없는 세상을 입자.

社說

광주·전남 악성 미분양 이대로 둘텐가

지역 특성 반영한 대책 내놔야

광주·전남지역 주택 거래시장에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만 1년 새 무려 96%나 증가했다. 하지만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분양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038가구로, 이는 2020년 10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370호로, 전년 동월(672호) 대비 96.3% 증가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전남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 대비 5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다.

미분양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

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 조치를 내렸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에 편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은 미분양 해소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수도권과 반대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가속화 될 경우 주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인구감소로 인해 이미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줄도산만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지방에서 통하지 않은 것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9월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미분양 CR리츠'의 경우, 지역 현실 상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크다. 앞서 8·8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등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들로 통한다. 그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히 보인다.

육아휴직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줄여야

기업의 역할 인식변화 필요해

아이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은 현실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인구절벽'을 타개하려는 민·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촉진을 위해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도 대폭 높였다.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일로 늘리면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의무화 등 아쉬운 점도 있지만 큰 진전이다.

육아휴직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주요 해법 중 하나다. 하지만 직장인 70%가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당장 고용부의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는 12만 6008명으로 전년보다 3.9% 감소했다. 엄마의 육아휴직이 압도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남성 사용자가 1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부와 기업의 간극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간 격차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당연하다.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남녀·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줄이려는 지도·감독도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양육·돌봄지원 없이는 '인구절벽'을 넘기는 요원한 일이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영화 '베테랑'을 봤다. 전작 '베테랑'을 재밌게 본 터라 속편을 기다렸다. 1편의 감독 류승완이 다시 메가폰을 잡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며 재벌 3세의 악행을 파헤친 정의감 넘치는 경찰 서도철(황정민)을 비롯한 강력범죄수사대 식구들이 다시 등장해 반가움을 더했다.

영화는 '해치'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인데, 그에게 피살된 이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다. 제자를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대학교 수, 사소한 시비 끝에 임산부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주취자 등이다. 이들은 각각 거

좋은 살인, 나쁜 살인

나쁜 살인이 있어? 살인은 살인이야"라고 일침을 날린다. 사적제재를 다룬 콘텐츠가 늘고 인기를 끄는 이유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재벌 수장들의 재판은 항상 지지부진하고,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혐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빵을 훔치고, 10만원을 훔친 절도범은 구속되고, 수백억원을 빼돌린 대기업 회장들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유력 정치인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거나 감옥에 갇

혀도 곤장 보석으로 나온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태에 답답함을 느낀 이들이 영화 속 주인공의 통쾌한 '사이타 복수'에 대리 만족을 느끼고 열광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국민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이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지난해 발표한 '2023 변역지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지수는 조사대상국 167개국 중 바닥 수준인 155위에 그쳤다.

영화 '베테랑'은 연쇄살인범 해치를 통해 사적제재가 이뤄진 배경을 상세히 보여주면서도 그 불법성과 위험성도 함께 다뤘다. 사적제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박성원 편집국장

'비질란테', '모범택시', '살인자ㅇ남' 등 사적제재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의 계보를 잇고 있지만 '베테랑'은 결이 다르다. 영화는 사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도철은 "사람을 죽이는데 좋은 살인이 있고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